

인도네시아어 반복법의 도상성에 관한 연구

전 태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교수

Abstract

This paper is a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duplication in Bahasa Indonesia(BI). BI abound in reduplicated sound-symbolic expressions, like Japanese and Korean, as such reduplicatio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significant morphological processes in BI.

Despite the huge number of these expressions in BI, scholarship has not hitherto paid much attentions to their non-arbitrary characteristics nor has not explained their iconicity systematically so far. This study concerns about the needs to describe the iconic patterns of reduplication in the grammar of BI. Firstly, tense-iconicity could be shown in verbal reduplicatives. Secondly, idiomatic reduplicatives could be considered as the remnants of diachronic reduplicated sound-symbolic expressions.

The iconicity of reduplication of BI must be described in a distinct component of the grammar of BI. As one of the simple-structured languages in the world, BI shows iconic patterns, being fundamentally language-specific, in the grammar. But at the moment, we do not have the formal linguistic tools necessary for describing iconicity. This problem could probably be solved by modifying formal conventions about rules and features.

목차.

- I. 머리말
- II. 인도네시아어 단어의 투명성
- III.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과 도상성
 1. 인도네시아어의 다음절어와 반복법
 2.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의 도상성
 3. 인도네시아어의 동시적 반복어와 도상성의 잔재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들의 언어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언어의 형식상 차이는 전달되는 뜻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어법word-formation의 한 가지인 반복법 reduplication은 언어형식의 양적 증가로써 의미의 차이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 형식의 형태론적 복잡성morphological complexity 과 의미의 복잡성 semantic complexity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인도네시아어의 반복어에 나타난 언어 형식상의 양적 증가와 의미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아 보는 것이다. 즉, 도상성 iconicity이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룬 언어의 도상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어의 단어 중에서 형식과 의미 사이의 유연성을 찾아본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에서 나타나는 언어형식의 양적 증

가와 관련하여 반복법의 도상성을 알아 본다. 또한 반복법 연구의 공시적 접근방법이 지닌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해서, 통시적 반복어의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반복법에 나타나는 도상성의 굴절현상을 알아 본다.

제4장은 결론 부분으로 인도네시아어 반복법에 나타난 도상성의 특징을 요약해 본다.

II. 인도네시아어 단어의 투명성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orang이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주지시킨 뒤, 'orang-orang'이란 단어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그 대답이 어떤 것일까?

인도네시아어의 '사람'의 반복형식인 orang-orang이란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투명하다. '많은 사람' 또는 '우글거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인도네시아어의 단어들 중에는 이와 같은 투명어가 많이 있다. 'orang-orang'과 같은 형식의 단어를 반복어라고 부르는데 반복법 reduplication이라 불리는 형태론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단어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음성과 의미간의 유연성을 지닌 단어들을 투명어라고 한다.

1) 반복 또는 여러번의 의미

māngangguk-angguk '끄덕거리다'
lonjak-lonjak '팔짝 팔짝 뛰다'
māukul-mukul '두들겨 패다'
tātawa-tawa '결결대고 웃다'

2) 행위가 상호 반복되는 의미

tolong-mānolong '서로 돕다'
pukul-māmukul '서로 때리다'
cinta-māncintai '서로 사랑하다'

1), 2)의 예들과 관련하여 형태론적 복잡성morphological complexity과 의미적 복잡성semantic complexity의 유관함을 지적했던 Jakobson(1971)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Haiman 1980: 528). 그는 문법적 상호관계에 있어서 제로형 접사 zero affix는 유표적 범주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고 비제로형(실제) 접사는 무표적 범주의 것이 될 수 없다(Jacobson 1971. 'within grammatical corelation, a zero affix cannot be steadily assigned to the marked category and a "non zero"(real) affix to the unmarked category.')고 했다. 이 말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따위의 등급관계가 음소수의 증가로 표시된다는 말이다.

III. 인도네시아어의 반복성과 도상성

1. 인도네시아어의 다음절어와 반복법

인도네시아어의 단어구조는 이음절형식이 기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ambang & Collins 1985:2-36는 대조적으로 3음절 형식의 고 Austronesia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어를 이루는 두 개의 음절 중에서 두번째 음절이 그 단어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의 예는 인도네시아어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야크어 Dayak, 자바어 Javanese, 참어 Cham, 타갈로그어 Tagalog따위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어근을 나타낸다(조정 197547)

- | | | | |
|----------|----------------|---------|---|
| 1) 말레이어 | bəlit' 말다, 감다' | 2) 말레이어 | mi-num '마시다' |
| 다야크어 | bilit' 포위하다' | 자바어 | i-num '마시다' |
| 자바어/말레이어 | kulit' 껍질' | 타갈로그어 | 'i-num '마시다' |
| 자바어/말레이어 | lilit' 꼬다, 감다' | 다야크어 | da-num '마시다' |
| 참어 | palit' 감다, 말다' | | *-num |
| 참어 | kulik' 껍질' | 3) 말레이어 | k*-luk '구부러지다, 휘다' |
| | *-lit | | tə-luk '만 (灣) |
| | pəliuk '포옹하다' | | de-ŋ kul (말레이어 duŋ kul) '뿔이
흰, 구부러진) |
| | *-luk | | *-kul |
- 4) 자바어 d-aŋ kul (말레이어 dəŋ kul '등 (藤) 나무')
- *표시는 실제 어의를 지니지 못한 형식 또는
자립적인 문법단위로 애매한 형식을 나타낸다.

앞의 예에서 1) 2) 3) 4) 의 각 단어들은 이음절어임을 알 수 있다(천정 1975: 212). 그것들은 각각 '감다, 꼬다, 마시다, 구부러지다' 따위의 의미와 관련된 단어들로써 조어법상 단어의 핵이 제2음절의 *lik, *num, *luk, *kul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Sudaryanto(1993)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는 의성어의 어근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음절어를 다음과 같은 예들 통해 분석하고 있다.

- | | |
|------------|-----------------------|
| 1) /kul/ | '꿀꿀, 쿨쿨' |
| dengkur | '꿀꿀 (쿨쿨) 거리는 소리' |
| mendengkur | '꿀꿀 (쿨쿨) 거리다' |
| dengkuran | '코골음, 꿀꿀거림' |
| kukur | '구우 구우 (산비둘기의 울음) 소리' |
| mengkukur | '구우구우거리다, 살살파내다' |
| dikukur | '굶하다, 패다' |
| tekukur | '산비둘기의 일종' |

앞의 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소리'를 표현한 다음절형식이 음절이 추가로써 보다 더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 단위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kur에 형태소deng-이 결합되면 dengkur'드르렁거리는데' 뜻을 나타내는 의성어가 되고 여기에 접두사 men-이 재차 결합되면 mendengkur'드르렁거리다'는 자동사로 품사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2음절어인 의성어가 접중사의 통합으로써 다음절어가 된 예에서도 쉽게 파악된다.

- | | | | |
|------------|----------------------|-----------------------|-----------------------|
| 2) tam | '판자치는 소리' | 4) g. em. e. len. tam | '계속되는 대포소리' |
| cang | '(칼따위가 부딪히는) 쟁그랑 소리' | g. em. er. cing | '동전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 |
| cing | '동전 소리' | g. em. er. en. cing | '동전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 |
| takk | '(단단한 물체끼리) 부딪히는 소리' | g. em. er. en. cang | '같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 |
| 3) len-tam | '세계부딪히는 소리' | g. em. er. tak | '똑딱거리는 소리' |
| den-cang | '쟁그랑거리는데 소리' | | |

den-cing '짤랑거리는 소리'
 de-lak '똑딱거리는 소리'
 ker-tak '달가닥거리는 소리'

2)의 단음절형식의 어근에 len-, den-, de-, ker 따위가 결합되면 3)의 예와 같은 2음절어가 되고, 접중사 -em-, -er-, -el- 따위가 통합되면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음절어가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어에서는 Jakobson이 지적했던 형태론적 복잡성과 의미론적 복잡성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언어의 형식 측면에서만 본다면 인도네시아어의 반복어는 다음절어의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dada(젓)가슴'은 *da-가 반복되어 형성된 2음절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orang-orang'(우글거리는)사람(들)'은 orang이란 두음절어가 4개의 음절로 구성된 한 단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 반복법에 나타난 도상성은 단어의 음절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설명되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어 반복법의 도상성

Haiman(1980: 531)은 반복법을 도상적 문법기재 iconically motivated grammatical operation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특히 강조intensity, 복수plurality, 그리고 반복repetition 따위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 반복법은 도상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한편, Simatupang(1983)은 그와 같은 반복어를 문맥구속적 context sensitive 반어문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

- 1) - 가) hangat-hangat tahi ayam '닭똥처럼 쉽게 식어버리는'
 나) malu-malu kucing '고양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다) keras-keras kerak' 누룽지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앞에서 hangat-hangat tahi ayam은 '무슨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은 해 놓았으나중도에서 쉽게 포기하는 성질 또는 성격'을 표현하는 관용어이다. 본디 hangat-hangat은 '따끈따끈한'이란 뜻을 표현하는 반복어이지만 hangat-hangat tahi ayam의 구조에서는 hangat-hangat이 tahi ayam'닭똥'이란 명사구에 후행하면서 hangat-hangat'따끈따끈한'의 도상적 의미가 굴절되고 있다. 즉, '쉬 식어버리는 성질'을 지닌 tahi ayam'닭똥'의 부정적 의미가 어순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예를 비교해 보면 보다 확실한 설명이 가능하다.

- 2) 가) tahi ayam ahngat-hanagat '닭똥이 따끈따끈하다'
 나) hangat-hangat tahi ayam '닭똥처럼 금방 식어버리는'

2)-가)에서는 hangat-hangat의 형식만으로 '따끈따끈한'이란 도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2)-나)에서 hangat-hangat이 후행하는 tahi ayam과 합성되어 특이한 문법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회적 표현구조 peripharastic construction(Haiman 1985: 66.)의 정착은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에 반영된 본래의 도상성을 굴절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 예로 다음에 제시된 두 문장에 나타난 반복어 kecil-kecil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Simatupang 1983: 128.)

- 3)-가) Kecil-kecil, si Ali sudah pacaran. '어리지만, 알리는 벌써 연애를 한다.'
 나) Anak si Ali masih kecil-kecil. '알리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만 하다.'

3)-가)에서 kecil-kecil은 '작더라도, 어릴지라도'의 '양보적'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3)-나)에서는 '아주 어린'의 의미를 나타낸다. 3)-나)에서 나타난 본디의 도상적 의미가 3)-가)에서는 종속절 subordinative clause이란 문법적 구조를 통해 '양보'의 의미로 바뀌어 나타나 있다. 결국 문맥 구속적 반복의 의미들은 본디 도상적 의미가 굴절된 결과임이 드러난다.

- 4)-가) Mereka memukul-mukul Ali. '그들은 Ali를 두들겨 댔다.'
 나) Mereka pukul-memukul. '그들은 서로 치고 받았다.'

한편 4)-가)에서 memukul-mukul의 기본형은 pukul '때리다'이다. 동사 pukul에 접두사 me-가 통합되면 타동사 transitive verb인 memukul '~를 때리다'이 형성된다. 따라서 memukul-mukul의 mukul은 기본형 pukul에 접사의 통합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파생된 이차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memukul-mukul이 *memukul-pukul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행위의 앞뒤 관계를 표시해 주는 시간적 도상성 time iconicity의 형식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memukul-mukul은 '계속되는 행위의 과정'을 표현해 주는 단어라는 사실이 반복되어 시차적 연속형식에 의해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발화의 순서가 행위의 시간적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현상의 보편적 원리가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공통된 인식을 도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Haiman 1985: 4).

반면에 pukul-memukul은 memukul-mukul에서와는 달리 기본형 pukul에 접두사가 통합된 형식의 memukul이 연이어진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 memukul은 형식상 타동사 임에도 불구하고 후행하는 목적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mukul-memukul로써 나타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 즉 pukul-memukul은 관련된 동작이 시간적 연속선상에 축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된 주어들간의 행위가 순서에 관계없이 상호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시해 준다.

이와 같은 도상성의 굴절현상은 인도네시아어의 cumi-cumi와 같은 반복어의 동음이의어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디 cumi와 ubur는 공식적으로는 자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식들이다. 하지만 그 반복형식 cumi-cumi와 ubur-ubur는 각각 자립어로서 '다리가 여러개 달린 해산물'이란 의미의 '오징어'와 '해파리'란 단어로 쓰이고 있다.

한편 cumi-cumi는 '오징어'라는 의미 이외에도 '어중이 떠중이' 그리고 '앞잡이, 첩자' 또는 '악한' 따위의 동음이의어 homonym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반복어 cumi-cumi는 그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도상성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복법의 도상성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형 또는 어근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암시해 준다.

3. 인도네시아어의 통시적 반복어

Gonda(1939)는 일찌기 인도네시아어의 단어 중에서 tetap(tap-tap) '확고한, 결정된', tetas(sak-sak) '깨다, 부서다', sesak(tas-tas) '혼잡한, 비좁은' 등을 통시적인 반복어 diachronic reduplication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음운론적 반복어 phonological reduplication로 분류된 dada '가슴', pipi '뺨', gigi '치아', bibir '입술' 등도 통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da, pi, gi, bir 따위의 어휘소가 반복되어 형성된 반복어가 아닌가하는 추측이 생기게 된다. Asmah(1975: 223)도 undang-undang '법', jejari '(바퀴)살' 따위의 반복어는 통시적으로 그 의미 및 형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추측은 인도네시아어와 동계열어인 Toba-Batak(TB어)의 반복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Simatupang(1983: 9)은 인도네시아어(BI)와 TB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반복어와 그 기본형의 통시적 혼전에 관해 다음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TB어	BI어	TB어	BI어
gagar '진동, 동요'	gegar	rutrut '미끄러져빠지다'	rurut
harhar '홀어진'	kekar	sarsar '살살움직이다'	sesar
hishis '침식된, 부식된'	kikis	sopsop '홀짝홀짝마시다'	sesap
puspup '사라진 쓸러내려간'	pupus	tastas '탁탁깨다, 부수다'	tetas
pipis '분쇄기, 맷돌'	pipis	tuptup '닫다, 막다'	tutup

이러한 사실은 앞서 지적했던 cumi-cumi와 ubur-ubur따위의 반복어의 기본형인 cumi와 ubur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그 단어의 도상성에 관한 문제의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cumi와 *ubur를 단어 또는 자립형태소로 간주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언어단위를 어떤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에 관해서는 Kern(1886)과 Brandstetter(1916)가 일찌기 말레이어의 어근과 관련된 반복법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이후 지금까지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시태의 입장에서 반복어의 형식과 그 의미의 파악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 뿐만 아니라, 되풀이 되는 형식과 기본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엄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어란 정의와 그 범주 설정이 애매한 경우가 흔히 있었다. 예를 들면 Ophuijsen과 Robins는 반복법을 합성어의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다. 특히 'Sunda어 연구'에서 Robins는 barang-barang '물건(들)' 등과 같은 반복어를 음운론적 합성어 phonological compound word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애매성은 어휘소 lexeme의 개념을 사용해 반복어와 합성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어에 있어서 합성법과 반복법은 각각 독립된 형태론적 과정 morphological process이다. 따라서 의미론적 반복어로 간주했던 다음과 같은 예들은 서로 다른 어휘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합성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adat istiadat '풍습, 관습'	kaum keluarga '친지가족'
budi bahasa '예절, 예의'	siap siaga '만반의 준비가 된'
gagah berani '아주 용감한'	utang piutang '빚, 부채'
hal ihwal '여러문제'	yatim piatu '고아'

따라서 Harimurti의 지적대로라면 pipi, dada, bibir, tetas, sesak 등의 기본형 *pi, *da, *bir, *tas, *sak 따위는 통시적 반복어의 잔재로써 간주되어야 한다.

IV. 맷는말

일찌기 말레이어, 자바어, 순다어의 연구에 관심을 두었던 Bijleveld는 반복법의 동기를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 또는 감정의 표현방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법이란 문법적 장치가 발생된 동기는 언어사용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의 복잡성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하고 확고한 문법구조의 결여 때문이라고 Bijleveld는 지적했다.

Bijleveld가 지적한 언어사용자 인식의 복잡성과 언어 형식의 복잡성의 상관 관계는 바로 본고에서 기술한 언어의 도상성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은 인도네시아어가 도상성의 정도가 높은 언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도네시아어 반복법은 인도네시아어가 '도상적' 언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문법적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법적'이란 용어는 Haiman의 용어에 따른 것이다. 그는 '어휘적'언어와 '문법적'언어를 전통적 개념과 상반된 입장에서 구분하고 있다.

Haiman(1985:166-167)은 '어휘적'이란 '일차적 어근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이란 뜻이고, '문법적'이란 '그와 같은 어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결합을 우회적 구조로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고립어 또는 분석어에 속하는 중국어가 '어휘적'이고 교착어 또는 종합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문법적'이라는 전통적인 개념과는 달리 도상성의 정도가 보다 강한 언어, 즉 비자의적 성향의 정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중국어나 월남어는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종합적인 synthetic 언어보다 더 문법적인 언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Haiman의 지적대로라면 인도네시아어는 '문법적'인 언어이다.

반복법의 다양한 의미범주는 인도네시아어 문법화 grammaticalization의 복잡성을 도상적으로 대별해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의 일차적 어근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결합을 보완하기 위한 우회적 표현 방법의 한 가지로써 반복법이 문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서 말레이어의 반복법이 더욱 생산적인 문법장치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Asmah(1975)와 Harimurti(1988)는 인도네시아어의 도상성과 반복법의 문법화현상을 설명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인도네시아어의 반복법의 도상성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제적 도상성 tense iconicity을 나타낸다. 반복법의 의미 중에서 '상호'의 항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화의 순서는 행위의 순서를 표시해 준다.

둘째, 언어형식의 양적 증가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예 : 문맥적 반복어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반복어의 형식상 형태론적 복잡성은 의미적 복잡성의 도상적 표시이다.

셋째, 반복법의 본디 도상성은 통시적 반복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형태적 변화를 거쳐 침식되어 불투명하게 될 수도 있다.

참고 문헌

- 김 방한(1988) 역사-비교 언어학, 민음사, 서울.
- 전 태현(1986) "인도네시아어 파생접사에 관한 연구"외대 논문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
(1987) 인도네시아 어문론, 전예원, 서울.
(1988) "인도네시아어 의성어에 관한 연구"외대 논문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
- 채 원(1986) 국어 어순의 연구-반복및 병행을 중심으로, 탑출판사, 서울
- 천정구지조(1975) 마라이-폴리네시아 제어, 홍문당, 동경.
- Asmah, H. O. (1975) "Reputation in Malay" Essays on Malaysian Linguistics, Dewan Bahasa dan Pustaka, Kuala Lumpur.
- Bambang Kaswanti & James T. Collins ed. (1985). Telaah Komparatif Bahasa Nusantara Barat Kumpulan Kartya Robert A. Penerbit Djambatan, Jakarta.
- Givon, Talmy (1984) Syntax,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Philadelphia.
- Haiman, John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n language 56. 3: 515-40...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In Language 59. 4: 781-819.
(1985) Natur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 Harimurti, Kridalaksana (1988) Beberapa Prinsip Perpaduan Leksem dalam Bahasa Indonesia, Penerbit Kanisius, Jakarta
- Hassan, Abdullah (1974) The morpholgi of Malay, Dewan Bahasa& Pustaka, Kuala Lumpur.
- Jacobson, Roman (1971)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n stem suffixes and and verbal aspects" In his Selected Writings II, 198-202. The Hague, Mouton.
- Lyons, John (1977) Semantics,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 Moravcsik, E. A. (1978) "Reduplicative Constructions" In Greenberg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3: 297-334.
- Simatupang, M. D. S. (1983) Reduplikasi Morfemis Bahasa Indonesia, Penerbit Djambatan, Jakarta.
- Sudaryanto (1983) Linguistik, Gajah Mada University Press, Yogyakarta
(1987) "Aneka Bentuk Ikonik" Deskripsi Bahasa, UGM, Yogyakarta
- Tim Penyusun Kamus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1988) Kamus Besar Bahasa Indonesia, Balai Pustaka, Jakarta.
- Ullmann, Stephen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Brasil Blackwell, Oxford. (남성우역 의미론, 의미과학 입문 탑출판사, 서울)